

마태오 복음서 19장

혼인과 이혼(마르 10,1-12; 루카 16,18)

- 1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 2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 주셨다.

- 1) 요르단 건너편은 유다 지방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유다인들이 접촉을 피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마도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서 강을 따라 내려가시다가 예리코 부근에서 다시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것으로 볼 수 있다.¹⁾
- 2)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예고를 하신 대로 유다 지방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다.

- 3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 4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 5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²⁾
- 6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7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³⁾ 하자,
-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25쪽, 각주 1 참조.

2) 창세 1,27 :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2,24 :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5,2 :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에페 5,31 :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1코린 6,16 :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 신명 24,1 :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 1) ‘떠난다.라’는 것은 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합’은 남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며, 그제야 둘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다.
- 2)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시는 것으로 일부일처이며, 갈릴 수 없는 서약이다. 제3자가 부적절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혼인과 독신

- 10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 12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 1)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이 지닌 애초의 존엄성을 복구시키시는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신비로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도래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상황을 드러낸다. 이는 혼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지 않는 종말론적 예와 상황이다. 곧 어떤 이들은 혼인 생활을 포기할 만큼 하늘나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⁴⁾
- 2) 독신생활이든 혼인 생활이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삶의 한 방법이요, 들다 하는님께서 축복하신 삶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마르 10,13-16; 루카 18,15-17)

- 13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 14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 15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 1)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거나, 신앙고백을 할 수 없으므로

4) 앞, 각주 9.

예수님께 나올 수 없거나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하느님 백성이다.

2) 하느님 나라에서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마르 10,17-27; 루카 18,18-27)

16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영원한 생명’은 곧 구원을 뜻한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⁵⁾

18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1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⁶⁾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⁷⁾

20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1) 하느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느님만이 무엇이 선인지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그러기에 생명 곧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2)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며 선 자체이시다.

2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⁸⁾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5) 레위 18,5 :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6) 탈출 20,12-16 :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병행 : 신명 5,16-20 참조).

7) 레위 19,18 :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8) 사도 2,44-45 :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 1) 예수님께서서는 계명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 2)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의 계명 특히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랑의 실천이 계명의 완성이다.
- 3)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젊은이는 예수님을 떠난다. 하느님의 선물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2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려울 것이다.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26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⁹⁾

- 1)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부가 불러오는 위험을 조심하라고 권고하신다.¹⁰⁾
- 2) “바늘 구멍”은 낙타가 짐을 신지 않았을 때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성벽의 작은 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바늘구멍 또는 바늘귀는 무엇이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뜻한다.
- 3)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며 집착에 빠지면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서 멀어지지만, 선택하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게 사용해야 한다.
- 4) 구원의 문제는 하느님 소관이다. 다만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뿐이다.

9) 창세 18,13-14 :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 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 42,2 :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예레 32,17 :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0) 앞, 126쪽, 각주 17 참조.

따름과 보상(마르 10,28-31; 루카 18,28-30)

- 27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 2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¹¹⁾
- 29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 30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 1) ”새 세상“은 현세가 끝날 때 인류와 우주가 새롭게 태어남을 가리킨다. 모든 것이 뒤바뀌고 뒤엎어지는 이때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심판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¹²⁾
- 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수행하실 세상 종말의 심판 때에 제자들도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신다.¹³⁾
- 3) 예수님을 따름의 최상의 상급은 백배의 상을 받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을 보장 받는 것이다. 백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의미한다.
- 4)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11) 묵시 3,21 :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 주겠다.

12) 앞, 127쪽, 각주 21.

13) 위, 각주 22.